

미용실·네일아트·선수 전용 술집 찾아 스트레스 풀어

외국선수들 경기 없을 때 뭘 하나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긴장감이 넘쳐나는 경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벽한 훈련 일정. 이런 가운데 광주 U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긴장감과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선수촌에서 경기와 훈련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미용실과 네일아트, 선수 전용 펍(Pub)을 이용하면서 긴장감을 풀고 있다.

우선 선수촌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미용실과 네일 아트실이다. 여성 선수들 사이에는 이미 ‘필수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미용실은 마감 1시간 전부터 선수들이 헛걸음을 하기 일쑤고, 네일아트실에는 오후 2~3시까지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줄을 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정도다.

네일 아트실의 경우 자신의 나라 국기 배지를 건네며 국기 모양의 손톱을 칠해달라는 ‘애국자’들의 주문이 대부분이다. 적게는 10만원, 30만원까지 호가하는 손톱에 반짝거리는 장식(스톤)을 붙이는 주문도 적잖다.

콜롬비아 테니스 선수 살바 카브레라(여·19)는 “오전에 열린 경기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네일아트를 받았다”며 “콜롬비아에는 없는 미용 기구들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손톱 모양이 나와 기분이 좋다”며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 5일까지 미용실과 네일아트실을 찾은 선수는 각각 195명·171명이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실(1482명)·탁구장(1575명)·스크린 사격장(2222명)·당구장(1898명)·에어 하키장(3635명) 등도 발길이 끊

이지 않고 있다.
선수촌 인근의 ‘선수 전용(Athletics Only)’ 술집인 ‘아레나 펍(Arena Pub)’도 인기다.
대회 기간에만 영업하는 이 곳은 오후 4시 오픈과 함께 미국·러시아·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선수·임원진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선수들은 맥주 한병을 두고 담소를 나누거나 닥트 게임을 하며 경기와 훈련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손톱에 국기 새겨 넣고 한복 입고 사진 촬영도 한국문화체험 인기 ‘짱’

특히 새벽 2시부터는 선수들이 클럽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광란의 ‘댄스 타임’이 열리면서 ‘끼’ 절절 넘쳐나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맥주가 100~150병 씩 팔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 국산 맥주(4000원)가 인기다.

선수단은 또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선수촌 국기광장 앞 한국문화체험관은 항상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선수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국 전통의상 체험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사물놀이 등 풍물패, 널뛰기 등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6일 선수촌 국기광장 앞에 마련된 한국 문화체험장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이모저모

광주 복귀, 기아챔피언스필드서 음악회

광주 복귀는 오는 7일 오후 5시부터 광주해운대비치사이드 야구 종목 경기장 앞 한국문화체험관은 항상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선수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국 전통의상 체험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사물놀이 등 풍물패, 널뛰기 등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광주 복귀는 오는 7일 오후 5시부터 광주해운대비치사이드 야구 종목 경기장 앞 한국문화체험관은 항상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선수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국 전통의상 체험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사물놀이 등 풍물패, 널뛰기 등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2년전 치료받은 카자흐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찾아

지난 2013년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해 목 뒷부분 경추신경종양을 치료받았던 카자흐스탄 스포츠계 기자 겸 사진작가 로 활동중인 미하일 체쿠로브(68)씨가 2년만인 6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았다. 광주U대회 취재차 한국에 온 그는 평소 종종 배가 아픈데다 담석과 담낭염증

등이 우려된다며 이날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미하일 체쿠로브씨는 “2년 전 수술받은 뒤 후유증이나 별다른 고통도 없이 완치된 탓에 화순전남대병원을 믿고 다시 찾아 평소 불편했던 분야를 진료받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채희준기자 chae@



지난 5일 카온고 선수단장(오른쪽) 등 우간다 선수들과 자리를 함께 한 권애영 전남도의원(가운데).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간다 선수단장 카온고

“대구U대회 참가해 딸 이름 ‘대구’로 지었어요”

권애영 전남도의원

우간다 선수단 후원 눈길

담양 출신 권애영(새누리당·비례·여·50) 전남도원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수단의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권 의원은 5일 오후 우간다와 호주의 농구시합이 열린 영광 스포티움을 찾아 우간다선수단 임원진 6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사직공원, 양림동, 화순 등을 가이드했다.

11일에는 우간다선수단 40명을 세계 대나무박람회(가) 열리는 담양에 초청, 저녁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조선대 디자인학부 정가서 교수와 인연이 닿아 우간다선수

단을 안내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뭇들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우간다선수단 단장인 폴 마크 카온고의 딸이 ‘대구(Daegu)’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구시의 기념품을 전달받아 챙겨주기도 했다. 폴 단장은 지난 2003년 대구해운대비치사이드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그 해 딸을 낳자 이름을 대구로 지었다.

권 의원은 “우간다 선수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그리고 광주·전남의 외교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d@

“2년 3개월간 갈아치운 인형옷만 10벌”

‘누리비’ 마스코트 양시습씨

“지옥 알바라고요? U대회 마스코트 활동하는 자부심 덕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저에게는 ‘꿀 알바’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양증맞은 동작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U대회 공식 마스코트 ‘누리비’ 속 주인공인 양시습(26·광주대 전기전자공학과 4년)씨.

광주 U대회 홍보부에서 누리비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U대회 성공 개최라는 사

명감을 갖고 무거운 탈과 두꺼운 옷을 입을 채 매일 경기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가 학교 선배의 권유로 ‘지옥 알바’라고 불리는 인형 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 3개월이 흘렀고, 벌써 취업 준비생이 됐다.

지난 2013년 3월 ‘누리비’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광주비엔날레, KTX 호남선 개통식 등 양씨가 가지 않은 대형 행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는 광주U대회 전국 순회홍보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주요 도시 9곳과



경기가 열리는 전남·북지역 8개 도시를 찾아 U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그동안 땀으로 범벅이 돼 갈아치운 인형 옷만 10벌이다. 피약벨 아래 서너 시간 동안 드문드문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면서도 양씨는 주어진 임무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했다.

양씨는 오는 17일까지 누리비로 활약을 펼친 뒤 남은 방학동안 전공을 살리며 취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전 세계 대학생의 축제인 U대회에서 대학생인 제가 마스코트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도 영광이죠”라며 “더위에 습도가 높은 장마까지 견디면서 일은 힘들지만, 저의 고향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k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 수술 후 기아근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